

인터넷 시대의 시민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 : '정보' 시민에서 감성적 모니터 시민으로

김 경 미 (Kim, Kyung-mi)*

(E-mail : ywomen@yonsei.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18일

*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인터넷 시대의 시민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 : '정보' 시민에서 감성적 모니터 시민으로 *

<국문요약>

이 논문은 21세기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현한 시민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한다. 새로운 시민참여를 설명하는 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매체화'와 '감성화'에 대한 논의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즉 미디어와 감정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학계를 지배해 온 '정보' 시민모델을 현실 설명력 있는 모델로 대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는 인터넷 시대의 시민모델로 감성적 모니터 시민을 제안한다. 감성적 모니터 시민은 감정의 영향력이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강화되고 있고, 참여활동이 가변성을 띠는 점을 강조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시민들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데 이러한 인식에는 감정이 배어있는 '뜨거운 인지'가 작동하고 있으며, 분노와 같은 감정이 시민들의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익명성, 저비용 등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강화되고 있다.

[주제어] 인터넷, 정보시민, 감성적 모니터 시민, 감정, 미디어, 시민참여

* 이 논문은 2007년 6월 전기사회학대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논문 개선에 도움이 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는 글

최근 미디어 시민, 감성 시민 등과 같이 새로운 시민 관련 담론이 대두되고 있다(Marcus 2002; Jorgensen 2006; Yu 2006; Pantti & Zoonen 2006). 이러한 담론은 그동안 학계를 지배해온 시민모델이 역사적 형성물이며, 21세기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모델로 대체될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시민 기준이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현 시대를 지배하는 시민모델이 있다면 이 또한 역사성을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현대 시민사회에 대한 우울한 진단 역시 바로 이런 측면에 주목하지 못한데 기인할 수 있다. 퍼트남(Putnam 2000)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낮은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발 결사체에 대한 참여가 감소하는 시민적 덕목의 후퇴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역사성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Schudson 2001; Ester & Vinken 2003). 즉 21세기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현한 시민참여 형태나 방식에 주목하지 않은 채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21세기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현한 시민 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한다. 현대 시민사회 담론을 지배해온 '식견을 갖춘(informed)' 시민모델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21세기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민모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서드슨(Schudson 1998, 9)에 따르면 식견을 갖춘 시민은 미국 역사 속에 등장한 다양한 모델 중 하나에 불과하며,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적합한 시민모델을 필요로 한다."

사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시민모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사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집회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시민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오프라인 집회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이끄는 기제나 동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김경미 2006; 김용철 2008; 김원 2005; 조희정·강장목 2008).

최근 학계에서는 새로운 참여 유형을 설명하는 축으로 매체화와 감성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Marcus 2002; Jorgensen 2006; Yu 2006; Pantti & Zoonen 2006; 김경미 2006), 본 논문도 이러한 추세에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미디어와 감정은 시민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돼왔지만, 인터넷 환경의 대중화와 감정 사회학의 발전은 이러한 인식에 변화를 낳고 있다. 여기서는 미디어와 감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새로운 시민모델에 던지는 함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등장은 미디어와 시민참여 논의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한 감정과 시민참여 논의는 어떤 구도로 전개돼 왔는가? 미디어와 감정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시민사회 담론을 지배해온 '식견을 갖춘' 이성/합리적 시민 모델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한 시민모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미디어와 '참여': '정보' 시민¹⁾ 모델 가정

1) 여기서 '정보' 시민은 서드슨의 구분(Schudson 1998)에 의하면 '식견을 갖춘' 시민 모델에 해당된다. 충분한 정보습득이 근대 시민사회 담론을 지배해온 이성/합리적 시민을 형성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와 '참여'에 관한 논의는 미디어 유형을 기준으로, 대중매체에 관한 논의와 인터넷에 관한 논의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의 논의가 대중매체의 정보제공 잠재력에 주목하며 주로 제도정치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인 인터넷 단계에서는 정보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표현의 잠재력이 부각되며 참여 논의가 제도정치 영역을 넘어 더 광범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그동안 진행된 많은 연구들은 대중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Graber 1989; Tolbert & McNeal 2003).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중매체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대중매체가 제도정치 참여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시청률을 의식한 채 피상적인 내용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참여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실질적인 정보가 아닌 피상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 대중매체의 보도 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 이용이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McLeod & McDonald 1985).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대중매체는 투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선거에 대한 관심을 촉발함으로써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관론자들이 피상적인 보도행태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중매체로부터 '학습'하고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다(Tolbert & McNeal 2003). 즉 대중매체 이용이 정치지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관심을 촉발해 투표참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식견을 갖춘 시민과 이성/합리적 시민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미디어의 경우 이러한 시민형성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정보' 시민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듯, 대중매체의 참여효과에 대한 논의는 낙관론과 비관론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구분된다. 이 두 시각은 참여효과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매체 이용이 정치참여를 촉발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정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디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치참여로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충분한 정보는 시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낙관론과 비관론은 대중매체가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미디어와 참여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인터넷 매체의 대중화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인터넷 이용의 확산은 퍼트남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의 인기²⁾와 더불어 '참여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배경이 된다.³⁾

-
- 2) 공식 및 비공식 형태의 자발 결사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 수준을 일컫는 '사회자본' 개념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자본이 위축되고 있다는 퍼트남의 주장을 통해 크게 부각된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기반인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참여가 지난 수 십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퍼트남의 주장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경험연구가 이어졌다. 특히, 퍼트남은 이러한 감소세가 신문 구독률이 감소하고 텔레비전 시청률이 증가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참여 효과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
 - 3) 미디어의 참여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확대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인터넷 매체의 기술적 특성이다. 인터넷은 대중매체와 달리, 쌍방향성, 상호작용성, 익명성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위한 수단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퍼트남의 사회자본론에 대한 인기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사회자본, 구체적으로 동호회, 자원봉사모임 등 다양한 자발 결사체에 대한 참여가 지난 수 십 년간 위축됐었다는 퍼트남의 주장은 정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참여 형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인터넷과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강화론과 동원론의 대립 구도로 파악된다(Stanley & Weare 2004). 먼저, 강화론자들은 인터넷이 기존 참여층에만 새로운 정보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자원이 풍부한 층과 빈약한 층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술적 잠재력과 실제적 이용 사이의 구분에 주목하게 한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무제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들은 정치적 이슈를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으며 뉴스 소비를 개인화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 불릴 만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Nisbet & Scheufele 2004). 인터넷은 특정 유형의 정보를 심도 있게 추구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지만, 개인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제공한 '정보의 바다'에서 실제 그 이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이용 동기 뿐 아니라 시간, 돈, 기술, 숙련 등 개인적 자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기존 참여층이나 관심층의 활동만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동원' 이론가들은 인터넷이 의사소통 활동 및 정보습득 비용을 감소시키고 대안적인 참여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집단의 참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Stanley & Weare 2004). 특히, 이들은 인터넷이 젊은 연령층과 소수자에게 새로운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고 본다. 다시 말해, 동원론자들은 의사소통 비용을 줄이고, 정책 입안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며, 정치적 숙의 및 토론기회를 확대하는 등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인터넷의 기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Nisbet & Scheufele 2004).

이렇듯, 인터넷의 참여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강화론과 동원론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강화론자들이 정보시민 모델을 전제로 주로 제도정치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원론자들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보다 다양한 참여기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초기의 강화/동원론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참여 유형의 다차원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복합적 효과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Stanley & Weare 2004; Norris 2005).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리스(Norris 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리스는 시민참여 유형을 투표, 캠페인 지향(campaign-oriented), 운동 지향(cause-oriented), 시민 지향(civic-oriented)⁴⁾ 등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처럼 참여유형을 세분화했을 때, 인터넷 이용은 투표나 캠페인 위주의 참여 형태보다는 운동이나 시민 지향적 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Norris 2005). 즉 투표와 캠페인 지향 참여 유형에서는 '강화' 효과가, 운동과 시민 지향 참여유형에서는 '동원' 효과가 부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디어와 시민참여 논의는 새로운 시민모델 모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미디어와 시민참여 논의는 기본적으로 학계를 지배해온 시민모델인 '식견을 갖춘' 이성/합리적 시민, 다시 말해 정보 시민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성/합리적 시민을 만드는 전제조건으로서 '정보'

4) 노리스(Norris 2005, 24~26)에 따르면, 첫 번째 시민참여 유형인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권 행사의 핵심이며, 인터넷은 식견 있는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장벽을 낮춤으로써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캠페인 지향의 참여 유형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로 정당을 통해 의회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정치인 접촉, 정당 기부, 정당 가입 및 활동 등이 포함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접근이나 정당 가입, 혹은 기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정당과 선거 캠페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 지향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슈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과 관련되는데 항의 시위, 탄원서 서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지향의 참여 유형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집단 뿐 아니라 다양한 자발 결사체에 대한 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다.

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참여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미디어의 정보 제공 잠재력과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질,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추구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해, '식견을 갖춘' 이성/합리적 시민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모델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복합적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Norris 2005)에 따르면 인터넷은 투표나 정당활동과 같은 제도정치 영역 보다는 집합행동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비제도 정치영역, 또는 자발 결사체와 같은 사회적 수준의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새로운 질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복합적 효과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의 참여는 실제 '충분한 정보'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 측면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III. 감정과 시민참여

감정과 시민참여는 매우 생소한 주제이다. 이 논의가 생소한 이유는 시민을 '합리적-비판적 행위자'로 파악해온 학문적 전통과 관련돼 있다(Pantti & Zoonen 2006). 그러나 존스(Jones 2006, 18)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모델은 경험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나아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재료를 교환하고 사용하는 방법, 이들이 진지하고 합리적인 만큼 노골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

1. 감정-비합리성 對 이성-합리성

감정은 그동안 시민참여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

다. 일반적으로, '감정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 지배력과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antti & Zoonen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은 정치 영역이나 시민권 행사에 부정적, 혹은 파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Suny 2004).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이성과 감정을 각각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대립 구도로 파악해온 전통에 기인한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영역이나 공공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는 배제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감정의 개입은 정의, 공정함, 속의적 사고로 대변되는 이성의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Marcus 2002). 이러한 생각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버마스(Harbermas 2006)에 따르면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담화상황이 창출돼야 한다. 이상적인 담화상황은 모든 참여자들이 어떤 장에도 없이 자유롭게 합리적인 속의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감정의 개입은 이러한 속의과정을 오염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Marcus 2002). 마커스(Marcus 2002, 5~6)에 따르면 감정이 이성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은 포퍼(Popper)에게서도 나타난다. "만약 논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존경, 사랑, 헌신과 같은 감정이나 열정 그 자체만으론 논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칙적으론, 이러한 감정이나 열정이 논쟁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우리에겐)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감정, 궁극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 공정함과 합리적 타협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정치적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감정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감정은 궁극적으로 폭력의 개입을 의미하고, 이성은 공정함과 합리적 타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 정치적 문제에 개입된다면 이는 폭력과 부정의로 이끌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성에 의존하고, 이성은 자신의 맞상대인 감정이 장기간 부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Marcus 2002).

사실, 감정이 비합리성과 관련되며 궁극적으로 폭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생각은 르봉(Le Bon)의 군중 모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Goodwin et. al. 2001).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인 르봉은 인간이 군중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군중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어서 통제하기 어렵고, 어떤 개인이라도 군중이 되면, '군중 심리'에 쉽게 감염된다. 즉 그는 개인을 흥분하기 쉬운 선동의 대상이며 군중 속에 있을 때 폭력적이 되기 쉬운 존재로 바라봤다(Suny 2004). 군중의 행동은 개인의 합리성이 아닌 맹목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지적 및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파악했다. 이처럼 르봉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향력에 주목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정치영역이나 시민권 행사에서 감정의 개입은 편파성과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정은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활동과는 무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세계는 "감정 없는 이성은 행동으로 이끌 수 없다"는 고전 사상가인 흄(Hume)의 직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Marcus 2002, 47). 여기서 우리는 정치참여 혹은 시민권 행사와 관련해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즉 우리는 무엇이 공평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지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 목표와 시도에서 편파적인 감정에 의해 추동되어야 한다.

감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따른다면, 우리는 고전적인 맞상대인 이성과 감정, 그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자가 자유, 정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면, 후자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며 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Marcus 2002). 그러나 이들이 전제해온 핵심적인 가정,

즉 이성과 감정이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고 이중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세계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가정은 최근 신경 심리학적 연구 결과와 감정 사회학의 논의로 인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2.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성숙한 정치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에 도전하는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다.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학자들은 감정과 비합리성을 동일시해온 전통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정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감정이 시민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르면 감정적 참여를 요청하는 일은 합리적 담론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Richards 2004).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감정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감정은 인간의 행위 동기에 핵심이다. 감정은 행위에 대한 자극이며, '자기-동일시(self-identification)'에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감정은 집단, 사회, 또는 국가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결속과 관련되며,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Suny 2004).

이러한 감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성과 감정, 인지와 정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보여주는 신경심리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Gould)는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느낌은 인간이 이해와 지식에 도달하는 한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고과정에 대한 장벽이기 보다는 필요 요소이다"고 지적한다(Suny 2004, 11 재인용). 이성과 열정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바라본 고전 사상가인 흄이나 합리성을 "흥분 및 기쁨과 거리가 있거나 먼 감정, 혹은 이와 무관한 감정"으로 파악한 짐멜(Simmel)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Suny

2004, 11).

또한, 저명한 심리학자인 다마시오(Damasio 1994)는 감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기보다 합리적 선택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뇌손상으로 감정 경험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뇌의 특정 부분-특히 전대상 피질-에 대한 손상은 운동, 감정, 집중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사고과정의 활동을 지연시킴으로써 이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한다고 지적한다.

감정과 이성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결과 뿐 아니라, 감정 사회학의 발전은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감정사회학 논의에 따르면 감정은 그 원천과 형태에서 상이하다(Goodwin et. al. 2001). 화나 놀람이 분개, 수치와 같은 '더 높은 순위'의 감정보다 더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면, 다른 감정은 보다 구성적이고 인지적 과정과 관련돼 있다⁵⁾. 굿윈 등(Goodwin et. al. 2001, 13)은 "일부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 인지적 과정과 더 많이 관련돼 있으며 구성적"이라면서 "정치와 관련된 감정은 이처럼 구성적이고 인지적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감정이 일시적이고 기분을 북돋는 느낌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중적인 숙의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Pantti & Zoonen 2006).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대한 연구에서 마커스와 맥쿠엔(Marcus & MacKuen 1993)은 감정이 정치적 이성을 왜곡시키기보다, 정치적 집중을 증가시켜 정치적 삶의 질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즉 감정은 '정치적 학습의 촉매'로 작동해 정치 영역에 긍정재를 제공할 수 있다.

5) 예를 들어 우리가 큰 동물을 보고 놀라는 것은 매우 자동적인 반응인 반면, 폐기물 더미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에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지적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학자들은 정치생활과 관련된 감정의 경우 전자가 아닌,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감정이 정치적 행동과 의사결정에 근본적이며 정치참여와 민주생활의 질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Marcus et. al. 2000; Marcus 2002; Richards 2004).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열정의 부족과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Pantti & Zoonen 2006). 시민들의 참여가 열정적인 감정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Hall 2002). 이들에 따르면 정치생활은 본질적이고 불가역적인 측면에서 감정적이다(Marcus et. al. 2000).

물론, 이러한 논의를 펼치는 학자들이 시민참여 영역에서 차지하는 이성과 합리성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은 많은 이론이 전제해온 이성과 감정의 대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Jorgenson 2006). 시민참여에 관한 주류 이론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상적 시민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감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성/합리적 시민의 패러다임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경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Jorgenson 2006).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참여 시민'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논의에 주목해보면, 시민권은 이성 뿐 아니라 분노, 사랑, 증오, 부정의와 같은 강한 감정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Jorgenson 2006). 이런 측면에서 마커스 등(Marcus et. al. 2000, 1)은 "감정과 이성이 상호작용해 사려 깊고 세심한 시민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감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성이 아닌 모든 영역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인식론적 전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서니(Suny 2004: 5)는 "그동안 '무합리성(non-rationality)'과 '비합리성(irrationality)'을 혼동해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파악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은 감정과 이성의 연계성, 상호보완성을 보여주는 신경심리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자연발생적 감정과 인지적/구성적 감정을 구분하는 감정사회학

의 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학자들은 감정과 인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며, 감정이 시민참여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IV. 인터넷 시대의 시민 모델

지금까지 살펴본 미디어와 감정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 시대의 시민모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정보'시민 모델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완벽한 정보와 선택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시민들이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정보시민은 근대 시민사회 담론을 지배해온 이성/합리적 시민을 형성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학자들은 이러한 정보시민 이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미디어를 주목했으며, 그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미디어의 참여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정보시민이 이상적, 규범적 수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인터넷의 '복합적' 효과에서 볼 수 있듯,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 측면에서 감정에 주목했다. 감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인지와 정서, 이성과 감정의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감정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한다. 현실적인 시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 뿐 아니라 감정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미디어 담론을 지배해온 정보시민 모델을 수정하면서 감정 측면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시민모델의 과제이다.

1. '정보' 시민에서 '모니터' 시민으로

'정보' 시민은 미디어와 시민참여 논쟁의 핵심을 차지한다

(Graber 2004). 미디어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구도를 형성해왔지만, 이들 입장은 모두 기본적으로 '정보' 시민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즉 미디어가 정보시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이한 입장을 가르는 축이었다. 미디어의 참여효과에 대한 논쟁은 미디어의 정보 제공 잠재력과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질,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추구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미디어와 시민참여 논쟁의 핵심에 있는 정보시민 유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발전된 선진사회에서조차 존재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인식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Graber 2004). 서드슨(Schudson 1998)은 약 200년에 걸친 미국 시민의 정치생활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한다. 그는 미국 역사에서 시민모델이 18세기 신뢰에 기반해 투표하는 '경의를 표하는 시민'에서 19세기 초 정당 충성심이 강한 시민으로, 이후 복잡한 정치에 대해 식견을 갖춘 '정보' 시민, 그리고 20세기에는 '권리 의식적인' 시민으로 이동해왔으나, 이처럼 풍부한 역사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모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정보시민에 국한돼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공적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어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민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raber 2004).

서드슨은 정보시민을 대체할 시민모델로 '모니터 시민(monitorial citizen)'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Schudson 1998; Graber 2004; Hoven 2005). 먼저, 모니터 시민은 정보 수집보다는 환경 감시에 관여한다. 서드슨은 모니터 시민의 모습을 수영장에서 어린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에 비유한다. 이들 부모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대신, 수영장에서 노는 아이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이들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할 경우 행동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Hoven 2005). 그에 따르면 모니터 시민은 '부재 시민(absentee citizen)'이 아닌, 다

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방심하지 않고 있는 시민이다.

또한, 모니터 시민은 이전의 완벽한 정보를 강조하는 시민모델과 달리,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완벽한 정보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Graber 2004). 모니터 시민은 정보환경을 읽기보다 대충 훑어본다. 이들은 단지, 그들 자신, 혹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주요 위협을 감지할 정도로만 정치적 장면을 신중히 주시하면 되는데 이것은 종종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한 위협이 감지될 경우 모니터 시민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Schudson 1998).

마지막으로, 모니터 시민모델은 시민들이 느끼는 감시의 필요성이 사이클을 그린다는 점을 강조한다(Graber 2004). 즉 위기의 시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나며 다른 시기에는 감소한다. 평소에는 정치뉴스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도 '위기의 시기'에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를 찾게 될 수 있다. 그래버(Graber 2004)에 따르면 1991년 테러주의자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했을 때, 199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서 수 개월 동안 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0년 대선 이후에도 차기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약 6주 동안 대통령의 직무 통제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뉴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 수준도 이러한 국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 시민의 모습은 정보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Hoven 2005). 즉 투표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소비한다. 방대한 정치이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비교,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보비용과 인지과정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지닌 시민의 이미지가 아닌, 정보비용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개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Hoven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잘러(Zaller 2003)는 모니

터 시민은 모든 배경이 상세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탐독하기보다 '화제 정보'나 '도난 경고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모니터 시민이 정보시민보다 현실 설명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본다. 모든 공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추구는 이상적 혹은 규범적 수준에서나 요청 가능한 일이다. 사실,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은 이슈나 국면에 따라 상이하고, 정보추구나 참여 활동도 가변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현실 세계에서 시민들은 공적 이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는 것도, 관련 정보를 항상 충분히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수준에서 정보를 추구하지만, 그 헤드라인이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다면 심도 있는 정보추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 인터넷은 바로 이러한 정보활동의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뉴스 헤드라인, 인터넷 이용자가 선택한 내용을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즉시 보여주는 하이퍼링크(hyperlink) 기능, 그리고 손쉬운 정보 수집을 도와주는 막강한 검색엔진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상적으로, 각종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수준에서 정보추구 활동을 하지만, '필요'할 경우 하이퍼링크나 검색엔진 등을 통해 방대하고 밀접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이처럼 시민들에게 모니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을 제공한다. 시민들이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을 항상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2. 인터넷 환경의 시민모델 : 감성적 모니터 시민

모니터 시민은 정보추구 활동의 가변성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시민들이 공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항상 완벽하게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정보활동 수준은 국면이나 이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서드슨(Schudson 1998)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시민은 일상적으로 뉴스 헤드라인만 훑어보는 수준에서 정보를 추구할 수 있다. 모니터 시민은 정보추구 활동, 나아가 참여활동이 지속적이지 않고 가변적인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모델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상적으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들을 활발한 정보추구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기제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시민들의 활동 사이클에서 정점을 형성하는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드슨(Schudson 1998)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클의 정점에는 '위기 상황'이 그 배경으로 작동한다. 즉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차가운 인지(cool cognition)'라기보다는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 즉 감정이 배어있는 인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식에는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감정 측면도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모니터 시민은 정보시민보다 현실 적합한 모델일 뿐 아니라 감성시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시민들의 가변적인 정보추구 활동이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감정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할 수 있다. 예컨대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행위를 촉발하는 힘을 지니는데(Collins 1990), 이러한 감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외에도 시·공간적 장벽이 없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특징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정보검색, 의사표현, 항의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특정 이슈에 대해 쉽게 반응할 수 있게 한다(김경미 2006). 다시 말해,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시민들의 반응도를 높이는 인터넷에서 적극적인 정보추구 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

서구 학계에서는 모니터 시민이 정보추구 활동의 경제성을 보여 주는 현실 모델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델은 정보활동과 감정, 인지와 감정의 연계 가능성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감정과 인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인터넷 공간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매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감정표출이 인지적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감정은 주로 텍스트를 매개로 표출되며, 이러한 감정표출은 정보추구, 의사표현 등 다양한 인지적 활동과 손쉽게 저렴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환경은 감정과 인지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사실, 감정은 참여행위를 이끄는 동기로서, 집단에 대한 결속감과 헌신을 강화하는 기제로서 시민들의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오프라인 대중정치에서도 주요한 기제로 작동해왔으며(신진욱 2007; 임종명 2008), 그 영향력은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크게 강화되고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감정 유발원이 되는 현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장성(폭력)의 규모나 강도와 같은 변수 외에도 현장노출의 시공간적 제약, 현장 전달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임종명 2008) 6),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대부분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오프라인 대중정치에서 이러한 한계가 극복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종명(2008)의 연구를 볼 것. 그는 80년 광주항쟁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감정 유발원이 오프라인 현장에 의존하는 문제가 '시·공간적 효과'와 전화, 유인물, 유언비어와 같은 전달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분석한다. 즉 공수부대의 폭력을 인식한 시민은 지역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나, 5월 18일 학생시위가 전남대에서 시내로 이동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을 공수부대의 폭력에 노출되도록 했고('공간성의 효과'), 5월 19일이 전달과 달리, 노동일이었던 점도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게 만들었다('시간성의 효과')고 지적한다. 또한 당시 전화나 유언비어, 유인물 등과 같은 전달매체가 폭력인지 범위의 공간적 제한성을 해소했다고 분석한다.

인터넷에서는 현장에 대한 접근이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신속하게 이를 널리 유포할 수 있는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는 기존 매체를 통해 불가능했던 정보들이 여과 없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현장성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현장(정보)에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개인의 감정은 오프라인과 달리, 텍스트로 저장되고 남에게 드러나는 '가시성(visibility)'을 띠게 되며 널리 유통될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밀도 있게 표출될 경우 집합적인 참여를 촉발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김경미 2006). 이처럼 감정의 영향력은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시대는 새로운 시민모델을 요구한다. 모니터 시민 개념은 감정 변수와 결합될 경우 대안 모델의 구체적인 상을 그리는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출현한 새로운 시민모델을 '감성적 모니터 시민' 7)으로 제안한다. 감성적 모니터 시민 모델은 감정의 영향력이 시

7)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한 '감성적 모니터 시민'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를 들 수 있다. 여중생 사망 사건의 미군 피고인에 대한 무죄평결을 계기로 확산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 공간에서 밀도 있게 표출된 분노의 감정이 오프라인 촛불집회에 대한 대중적인 참여 기제로 작동했기 때문이다(김경미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11월 20~22일 미군 피고인에 대한 무죄평결과 23일 "미군 뜻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자기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그걸 제대로 밝힐 수 없는" 부정한 현실-'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시키는 계기가 된다. 특히, 무죄평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26일 밤에는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네티즌의 분노를 급격하게 동원하게 된다. 공중파 방송이 보도된 26일과 27일 새벽 사이에 온라인에서 밀도 있게 표출된 분노의 감

민들의 반응도를 높이는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활동이 지속성을 띠지 않고 이슈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강조한다.

V. 결론

이 논문은 21세기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현한 시민 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참여를 이끄는 두 축인 매체화와 감성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 논의를 통해 '정보' 시민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드슨의 모니터 시민 개념은 이러한 모델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했으며, 본 논문은 21세기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한 시민모델을 '감성적 모니터 시민'으로 개념화했다. 이 시민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감정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최근 새로운 저항 및 참여유형에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한편, 감정 등 다른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으며(Stolle & Hooghe 2004), 또한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이 시민참여의 중요한 기제임을 보여주는 경험연구도 발표되고 있다(Pantti & Zoonen 2006; 김경미 2006).

이러한 감정의 영향력은 일상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다. 인터넷에서는 동영상, 사진 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형태가 가능하고, 이것이 각종 게시판이나 메일,

정은 즉각적인 집합행동을 이끄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메신저 이름 앞에 '추모 리본'을 다는 캠페인이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불과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확산되는 '가시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집합행동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증폭시킨 네티즌들은 30일 오프라인 촛불집회를 성사시키고, 이후 계속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주요 세력이 된다.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유포될 수 있으며,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만으로도 익명성, 저비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집합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김경미 2006; 김용철 2008). 요컨대, 분노와 같은 감정이 시민들의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감성적 모니터 시민은 이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개념일 수 있다.

둘째, 이 모델이 감정과 인지의 연계성 혹은 상호작용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시민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감정은 합리적 이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돼왔지만, 최근에는 이성이 아닌 모든 영역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전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감정과 이성의 연계성 및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감정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바로 이런 연계성 측면에서 매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감정이 주로 텍스트라는 인지적 활동을 매개로 표출되고, 이러한 감정 표출이 정보추구, 의사표현, 항의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손쉽게 저렴하게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모델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론 주변 환경을 지켜보다가 자신이나 공동체에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보추구나 참여활동에 적극 나서는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은 특히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가운 인지' 보다는 감정이 배어있는 '뜨거운 인지'일 수 있는데 감성적 모니터 시민 개념은 이 측면도 잘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참여활동이 지속적이지 않고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을 띠는 새로운 참여의 일반적인 특징(Stolle & Hooghe 2004; Hooghe & Dejaeghere 2007)과 감정이 이러한 활동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측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감성적 모니터 시민은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현한 시민참여를 설명하는 유용한 모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감성적 모니터 시민은 전체 시민 모델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들의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며,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들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민 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작업에 이어 제기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질문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끝으로, 이 논문이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출현한 새로운 시민 모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한 경험연구라는 후속작업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경미, 2006, "온라인에서의 집합행동에 관한 '합의동원' : 2002년 여중생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1호.

김용철, 2008, "촛불시위의 동학", 『정보화정책』 15권 4호.

김 원, 2005, "사회운동의 새로운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 : 2002년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담론 201』 8권 2호.

신진욱, 200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에서 도덕 감정의 역할 :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분석", 『경제와 사회』 73호.

임종명, 2008, "5월 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 : 5월 18일과 19일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32집.

조희경·강장묵, 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한국정치학회보』 42집 3호.

Collins, Randal, 1990, "Stratification, Emotional Energy, and the Transient Emotions." in Theodore D. Kemper(ed.), *Research Agendas in the Sociology of Emot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Damasio, Antonio,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G.P. Putnam's Sons: New York.

Ester, Peter & Henk, Vinken, 2003, "Debating Civil Society: On the Fear of Civic Decline and Hope for the Internet Alternative." *International Sociology* 18(4).

Goodwin Jeff, James Jasper & Francesca Polletta, 2001, "Why Emotions Matter." in Jeff Goodwin, James Jasper & Francesca Polletta(eds.), *Passionate Politics: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aber, Doris, 1989,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_____, 2004, "Mediated Politics and Citizenship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Hall, Cheryl, 2002, "Passions and Constraint : The Marginalization of Passion in Liberal Political Theory."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28(6).

Harbermas, Jürgen 저, 장춘익 역,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1』. 나남출판.

Hooghe, Marc & Yves, Dejaeghere, 2007, "Does the 'Monitorial Citizen' Exist?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Occurrence of Postmodern Forms of Citizenship in the Nordic Countrie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Hoven, Jeroen van, 2005, "E-democracy, E-contestation and the Monitorial Citizen."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7.

Jones, Jeffrey, 2006, "A Cultur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ted Citizenship." *Social Semiotics* 16(2).

Jorgenson, Karin, 2006, "Mediated Citizenship(s): An Introduction." *Social Semiotics* 16(2).

Marcus, George & Michael, MacKuen, 1993, "Anxiety, Enthusiasm, and the Vote: The Emotional Underpinnings of Learning and Involvement during Presidential Campaig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_____, Russel Neuman & Michael Mackuen, 2000, *Affective Intelligence and Political Judg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2002, *The Sentimental Citizen, Emotion in Democratic Politic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McLeod, Jack & Daniel, McDonald, 1985, "Beyond Simple Exposure: Media Orient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Political Process." *Communication Research* 12.

Nisbet, Matthew & DiTrom, Scheufele, 2004, "Political Talk as a Catalyst for Online Citizenship,"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4).

Norris, Pippa, 2005,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ctivism: Evidence from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Government Research* 1(1).

Pantti, Mervi & Liesbet, Zoonen van, 2006, "Do Crying Citizens Make Good Citizens?" *Social Semiotics* 16(2).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Richards, Barry, 2004, "The Emotional Deficit in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

Schudson, Michael, 1998,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Public Life*. New York: Free Press.

_____, 2001, "Politics as Cultural Practice." *Political Communication* 18.

Stanley, Woody & Christopher Weare, 2004,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36(5).

Stolle, Dietlind & Marc, Hooghe, 2004, "Inaccurate, Exceptional, One-Sided or Irrelevant? The Debate about the Alleged Decline of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in Western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Suny, Ronald, 2004, "Why We Hate You: The Pass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Ethnic Violence." Berkely Program in Soviet and Post-Soviet Studies, http://repositories.cdlib.org/iseees/bps/2004_01-suny.

Tolbert, Caroline & Ramona, McNeal, 2003, "Unraveling the Effects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2).

Yu, Haiqing, 2006, "From Active Audience to Media Citizenship: The Case of Post-Mao China." *Social Semiotics* 16(2).

Zaller, John, 2003, "A New Standard of News Quality: Burglar Alarms for the Monitorial Citizen." *Political Communication* 20(2).

A Study of the Citizen Model in the Internet
age: From Informed Citizen to "Emotional
Monitorial Citizen"

Kim, Kyung-mi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

Key words : Internet, Informed citizen, Emotional
monitorial citizen, Emotion, Media, New
participation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theory of the citizen model that has emerged in the 21st century Internet environment. The paper starts with a discussion of "mediatization" and "emotionalization," which are perceived as mechanisms to motivate new citizen participation. It then explains the need to replace the dominant model of the informed citizen by reviewing contemporary discussions of mass media, Internet, and emotion. It proposes instead the term "emotional monitorial citizen" as the citizen model for the Internet. This citizen model highlights the influence of emotions on various participatory activities, which are reinforced in the Internet environment. This model indicates that citizens will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when they judge the situation to be critical or in a "crisis." The study uses the term "hot cognition" to refer to the ability of emotions such as anger to activate a situation, with the Internet playing a key role in helping to trigger citizen action.